

공공의료사업에 앞장서는 종합검진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종합검진센터를 찾다

글/취재 김연(시인, 부산시보 객원기자) 사진 이상윤(SEOUL EYE)



밤새 내렸던 비가 활짝 갠 월요일 아침이다. 부산시 동래구에 위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종합검진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모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다. 대부분이 중장년의 나이를 훌쩍 넘긴 어르신들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분들을 세심하게 안내하고 배려하는 손길이 여기저기서 눈에 띈다. 종합검진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담당직원들의 친절함 의식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이유가 뭘까?

종합검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성대 본부장은 말한다.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그렇지요. 이곳에서는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검사 후 유소견자에 대해 시내 60여 개의 의료협약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며, 완치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일회성 치료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료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가도록 여러 공익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검진기관

사실 부산시지부에서 해오고 있는 공익사업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시작으로 시민들을 위한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 캠페인 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작년에는 직장 내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금연 도우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가 하면, 척추측만증 아동과 비만 학생들을 위한 검진 세미나를 열면서 저소득층 척추측만증 학생들에게 보조기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올 3월에는 ‘암 예방의 날’을 맞아 부산지하철 동래역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에게 혈액, 암 및 간 기능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암 조기검진과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였다. 재작년에는 타 지역에 비해 간암 사망률이 유독 높은 부산 지역의 질병 역학관계 조사를 앞장서서 실시하기도 하였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검진기관이 되기 위해 첨단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불편사항도 귀담아 들으려는 자세가 돋보이는 곳,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종합검진센터에서 부산 시민들의 든든하고 건강한 내일을 새삼 엿볼 수 있었다.



2005년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시지부 종합검진센터 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선 산부인과 전문의는 지방 최초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성공했을 정도로 해당 분야에서 실력자로 통한다. 의술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온 분이면서 공공의료기관을 책임지는 분이어서 그럴까? 의사로서의 연륜과 온화함이 함께 묻어나는 김태선 원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다.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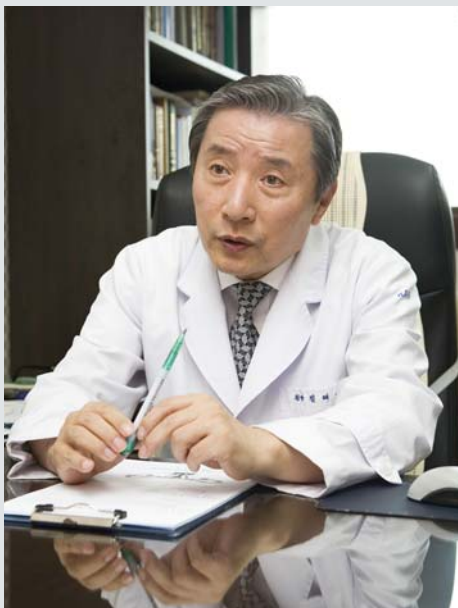
원장 취임 후 종합검진센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검사 장비를 도입하여 암의 조기발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내 유명 전문의를 영입하고 위·대장 내시경을 비롯한 산부인과 경질 초음파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선형 CT의 도입으로 암 검진 및 진단의 정확성이 높아지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한 단계 비약적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앞으로 U-health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미 올해 초, 전 단계로 PACS(의료영상정보시스템)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왜 중요한지

우리 몸은 40대를 넘어서면서 잘못된 생활습관에 대해서 서서히 적신호를 보내 온다.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암이나 당뇨, 혈압 관련 질병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주어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 특히 암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기 발견만 한다면 거의 95% 이상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귀찮다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말고,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시지부 종합검진센터 원장 김태선